

#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개최

6건 지정·해제 심의... 은선암 소유 석가모니 목재불상 등 4건 신규 지정·웅치전적지 해제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은선암 소유 석가모니 목재불상 등 관내 문화유산 4건을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안의 향토문화와 민속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 6건에 대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회 결과 유형문화재 부분 4건(석가모니 목재불상, 미계 신의련 유적비, 전동흥 장군 신도비, 광국재)과 무형문화재 1건(진안 인삼재배문화)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광국재를 제외한 4건이 신규로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던 웅치전적지에 대해서는 해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제를 결정했다.

먼저 은선암 소유 석가모니 목재불상은 전체 높이가 약 73cm로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보아 17세기 중반 정도 문화재로써, 불상의 조형성도 뛰어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미계 신의련 유적비는 임진왜란 당시 많은 백성들이 꺾발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의 효행으로 진안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의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5호인 영모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점을 높이 샀다.

전동흥 장군 신도비와 사당인 광국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유학자이며 항일운



은선암 목조석가여래좌상 정면.

동가인 최병심 학자의 글과 시서화의 3절로 유명한 이광열 선생이 특유의 예서와 안진경 서체로 썼다는 근거를 토대로 신도비는 지정이 되고, 사당인 광국재는 1968년도 건축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건축연대가 짧아 부결되었다. 전동흥 장군은 진안 가림리 출생이며, 1651년(효종2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용맹을 인정받아 효종에 의하여 발탁되어 이상진, 소두산과 함께 삼검로 불렸으며,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장화홍련의 원혼을 풀어준 설화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진안의 인삼재배문화는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는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은 물론, 역사학과 문화인류학 등 엄밀한 학문적 방법론을 동원해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정했다. 진안의 인삼재배문화는 추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1호인 웅치전적지는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됐다.

이는 당초 완주군 지역으로만 지정되었던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 웅치전적지가 진안지역을 포함하여 변경·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웅치전투의 주요 전투지가 진안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임이 규명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진안군은 전라북도·완주군과 공동으로 국가문화재 사적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4건을 비롯하여 총 34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진안군의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 이주여성과 한글 세계화 '앞장'

한글세계화문화재단, 세종대왕어가행렬 재현·세계전통의상발표회 가져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이사장 심의두)은 최근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센터장 서진숙)와 함께, '한글세계화를 위한 세종대왕어가행렬 재현 및 세계전통의상발표회'를 가졌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출연자와 관계자만 참석하는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도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개최됐다.

전문MC 키미킴의 사회로 진행된 1부행사는 마부예술단의 난타로 문을 열었고, 기념식에는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 심의두 이사장, 사무총장 양교준, 아름다운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서진숙, 전북도의원 홍성임, 라마다전주호텔 박경희 사장, 사)온누리안은행 대표 전석진, 사)전북사랑나눔 이사장 이규탁, 전북도 전 정부부지사 우병기, 기획정책위원회 이경희 회장, 두앤스무용단 대표 홍화영 등이 참석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인재개발원 김민숙 명칭의 민요와 박보성 교수의 색소폰연주가 있었고, 세종대왕과 소현왕후의 어가행렬, 당의, 평상복, 혼례복 등의 한국고유의 전통복들이 관람하는 많은 분들의 갈채를

받았다. 또한, 세계전통의상발표회는 총 20명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모국으로 한 이주여성과 전년도 수상자들의 참가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발표회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인기상, 특별상, 전체참가상 등과 함께, 화장품, 자전거, 호텔숙박권, 모국방문 항공권 등 다양한 상품을 참가자 모두에게 시상해 이주여성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이주여성들의 기량과 재능에 감탄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진숙 아름다운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원센터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주여성들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의두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 이사장은 "전북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재능에 탄복했고,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 한글이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될 때까지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남원시, 제39회 전국국악대전·제40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 개최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와 남원시지부가 주관하는 '제39회 전국국악대전'과 '제40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가 지난 20일과 21일 남원시 합파우소리체험관,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39회 전국국악대전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국악대회로,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상, 교육부장관상 등이 수여되는 유서깊은 국

악대회이다.

본 대회는 판소리, 무용, 기악, 민요, 시조 5개 분야의 경연으로 이뤄졌으며, 참가대상은 일반부와 신인부, 학생부로 나뉘어 전국에서 모인 국악인재들의 열띤 기량 대결이 펼쳐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일 예선과 학생부 종합 경연은 동영상 비대면 심사로 이뤄지고,

21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일반부 본선 진출자들의 대면 심사가 진행됐다.

전통농악의 계승발전과 농악 저변확대를 위한 '제40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도 20일 함께 개최됐으며, 시군농악경연대회의 경우 합파우소리체험관에서 비대면 단심제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gallery숨서 '모든 것이 거의, 겨우 완벽함' 문채원 개인전

문채원 개인전이 22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gallery숨에서 '모든 것이 거의, 겨우 완벽함'이란 주제로 열린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3시까지다. 다만,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gallery숨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

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숨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설명서는 처음과 끝이 뚜렷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전달 시스템은 친절하고 직관적인 어조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작동하지 않는 설명서(pseudo manual) 시리즈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기호와 지시를 흘뜨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장면을 구성한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 대신 농담과 말장난으로 대체된 설명서는 실수와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인다.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세계에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정답보다 애매한 임시방편들이 아닐까.

한편 문채원 작가는 국민대학교 회화전공 졸업했다. 전북청년 2021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 개최

남원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11월 중으로 연기되었던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을 지난 20일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개최했다.

페스티벌에서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국악 꿈나무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했고, 총 13팀의 청소년 국악팀들이 '안숙선 명창의 여정'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공연을 펼쳤다.

특히 올해 창단된 시립어린이국악단원들의 판소리공연과 판소리뿐만 아니라, 가야금, 무용, 기악 공연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남원시는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에서 국악을 사랑하는 많은 국악 인재에게 마음껏 기량을 펼칠 기회가 제공되고, 경쟁을 떠나 젊은 국악인들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